

우리나라 가족교육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리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A Basic Study on a Management Plan for Family Education Professionals in Korea

송현애(Hyun-Ae So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Baekseok University

<Abstract>

Family education service for healthy families has increased steadily over the past ten years since the Healthy Family Act was ena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family education professionals such as family life educators and healthy family specialists, and also suggest a management plan for them. The data used was collected from literature regarding family life educators and healthy family specialists, reports and home pages o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in Seoul and Gyeonggi-do,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etc. The major suggestions are as follows: 1) empowerment of family education professionals, 2) development of the workplace for family education professionals, 3)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various education programs for families, 4) improvement of the capability of family education professionals response to a low fertility-ageing society, 5) collaborative networking between family life educators and healthy family specialists. This study contributes to provide insights on how to train and manage family education professionals.

▲주제어(Key Words): 가족교육 전문인력(family education professionals), 가족생활교육사(family life educator), 건강가정사(healthy family specialist), 건강가정지원센터(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I.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가족생활교육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현대사회의 개인과 가족이 직면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관, 종교기관,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B. M. Kim & H. S. Chung, 2007). 건강가정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

되기 시작하면서 이 새로운 서비스 제공 현장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부부교육 및 부모교육 등 다양한 가족교육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제34조) 전국의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가족돌봄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가족교육사업은 가정문제 예방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특성과 지향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업영역(Y. J. Lee, 2008b)이라 할 수 있다. 2015년도

* 본 논문은 2015년도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2016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Hyun-Ae So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Baekseok University, Anseo-dong, Dongnam-gu, Cheonan 31065, Korea, Tel: +82-10-6337-3826, E-mail: shyuna@bu.ac.kr

부터는 독립형센터뿐 아니라 다기능화센터에서도 필수사업이 종래의 가족돌봄, 가족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3개 영역에서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등 3개 영역으로 변경되며(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5) 가족교육이 강조되고 있어 정책적으로도 점점 관심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족교육의 전문인력으로는 가족생활교육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 가정복지사와 건강가정사의 경우에는 가족교육이 그들의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1996년 가족생활교육사 자격규정이 제정되면서 그 이듬해부터 가족생활교육사가 배출되어 한국가족관계학회 주관으로 가족생활교육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대한가정학회와 한국가정관리학회가 중심이 되어 1998년부터 가정복지사가 배출되기 시작하고 현재 가정학실천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후 2005년부터는 건강가정기본법을 현실적으로 구현해가는 가족서비스 전문인력으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그 자격을 인정하는 건강가정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이들이 현재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교육사업을 포함한 폭넓은 건강가정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최근 가족학교 전문강사와 패밀리세프 강사 등 새로운 가족교육 전문강사를 모집·양성하고 있다. 진정한 결혼의 의미를 일깨우고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생활 준비를 돕는 「예비부부교육」, 일·가정 양립 인식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신혼기 부부의 건강한 결혼생활 적응을 돕는 「신혼부부교육」, 베이비부머세대의 생활역량강화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베이비부머교육」을 가족학교 사업으로 통합 운영하면서 가족학교 전문강사 즉 예비부부교실 전문강사, 신혼부부교실 전문강사, 아버지교실 전문강사, 베이비부머교실 전문강사를 모집하여, 2015년 현재 예비부부교실과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은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혼부부교실과 베이비부머교실은 올해 가족학교로 선정된 10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부모자녀 하나되기 교육의 일환으로 패밀리세프 전문강사와 찾아가는 대화코치 전문강사 등 가족교육사업의 확산에 따라 새로운 가족교육 전문강사 확보에 나서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주목하여 이들 가족교육 전문인력 중 가족생활교육사와 교육사업담당 건강가정사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현재 예방 차원의 복지가 강조되면서 가족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족교육 전문인력으로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민간자격인 가족생활교육사의 활

동이 부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둘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통로로 부각되면서(H. R. Song & Y. K. Jeong, 2008) 교육사업담당 건강가정사들이 가족교육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상당수의 건강가정사들이 교육강사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서울시 등 광역센터에서 별도로 가족교육 전문강사들을 모집하여 이들이 가족교육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가족교육 수행 자격을 갖춘 가족생활교육사나 건강가정사와 같은 가족교육 전문가가 매년 꾸준히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족교육을 시행할 때마다 서울시 등 광역센터에서는 새로운 가족교육 전문강사를 모집·양성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연 이들 가족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가족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우리나라 대표적인 가족교육 전문인력인 가족생활교육사와 교육사업담당 건강가정사 양성과 관리의 지금까지의 현황과 문제점 전반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립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족생활교육사'와 '건강가정사'에 관련된 국내 학술지논문들을 한국학술정보(<http://kiss.kstudy.com>)와 과학기술학회마을(<http://society.kisti.re.kr>),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에서 수집하였다. 하지만 '가족생활교육사'에 대한 연구는 전문직으로서의 가족생활교육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과제를 제시한 H. S. Chung(2002)의 연구가 유일하고, '건강가정사'에 대한 연구는 M.-A. Sung and H.-A. Lee(2004a)의 연구를 시작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가족교육 담당 건강가정사에 대한 연구는 교육사업 건강가정사의 직무와 역량에 관해 제시하고 있는 Y. J. Lee(2008b)의 연구가 수행되었을 뿐 가족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연구는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부수적으로 가족생활교육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교육사업에 대한 연구는 문들을 찾아가며 본 연구의 관심사인 가족생활교육사와 교육사업담당 건강가정사 등 가족교육 인력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수집·보완하였다.

그리고 이들 자격증 관련 주관기관들, 즉 가족생활교육 전문가를 배출하여 관리하고 있는 한국가족관계학회의 가

족생활교육사 자격규정 및 시행세칙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족교육이 가장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리 감독 및 지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가족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자료들과 홈페이지들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가족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관리의 현황을 정리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III. 연구결과

가족문제 예방을 목표로 개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족교육 전문가인 가족생활교육사와 교육사업담당 건강가정사, 그리고 최근 서울시 등에서 모집·양성하고 있는 가족교육 전문강사들의 양성과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생활교육사: 관리 미흡으로 활동터전의 부재

가족생활교육사는 한국가족관계학회에서 규정하는 필수 교과목을 학부나 대학원 및 학점 인정기관에서 이수한 자로서 소정의 필기시험과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하며, 가족생활교육사 2급, 가족생활교육사1급, 가족생활교육전문가로 구분된다. 2급 가족생활교육사는 가족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수행하고 상위급 가족생활교육사의 교육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가족생활교육사 1급은 가족생활교육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2급 가족생활교육사의 훈련과 평가를 할 수 있고, 가족생활교육전문가는 가족생활교육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2급·1급 가족생활교육사의 훈련과 평가를 할 수 있다. 한국가족관계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족생활교육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Table 1>과 같다(Korean Associations of Family Relations, 2015).

가족생활교육사 양성의 문제점으로는 가족생활교육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지식과 현장경험 모두가 필요함(<http://www.ncfr.org>)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생활교육실습과목이 필수요건으로 규정되어있지 않다는 점과 필기시험과목이 편중되어있다는 점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족학교 프로그램을 보면 예비부부교실 ‘우리 결혼할까요?’에서 4회기는 ‘결혼체크리스트와 재무계획’이, 신혼부부교

실 ‘함께 만드는 春,香,家’에서도 4회기에 ‘신혼기 가계재무교육’이, 그리고 베이비부머 가족교실 ‘꽃보다 중년’에서도 5회기에 ‘재무교육’이 가족교육의 주된 교육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당수의 생애주기별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가족관계나 가족생활의 인적 요소뿐만 아니라 물질 요소가 주요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자원관리 관련 과목이 시험과목에서 배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요구된다.

가족생활교육사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1997년 처음으로 가족생활교육사가 배출된 이후 2014년 현재 가족생활교육사 2급 자격소지자 829명, 가족생활교육사 1급 26명, 가족생활교육전문가 63명이 학회차원의 자격증을 받으며 배출되었으나(Korean Associations of Family Relations, 2015), 그동안 이들 자격소지자에 대한 관리가 미진하여 이들의 활동영역이 과약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도 2013년부터 한국가족관계학회에서 가족생활교육사 자격을 재정비하면서 점차 관리에 대한 전열을 가다듬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생활교육사 자격 주관기관인 한국가족관계학회에서는 가족생활교육사를 국가공인자격으로 입법화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왔으나 아직까지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2015년 7월 15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요구에 따라 2015년 10월 현재 가족생활교육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논의 중에 있다. 예방과 교육에 중점을 둔 가족생활교육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만큼 가족생활교육사 양성 기관에서는 가족생활교육에 대한 전문적 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자격 부여 및 유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배치의 안정성을 위한 노력(S.-G. Jeon, 2014)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2. 교육사업담당 건강가정사: 직접적인 교육활동보다는 외부강사 섭외하는 코디네이터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제 2,3항에 의하면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그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에서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진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센터에서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

Table 1. Requirements on qualification of family life educators

Family life educator	Standard Level (the 2nd level)	Advanced Level (the 1st level))	Supervisor	
Qualification	Subjects related to family studies and family relations (2)	Family Studies, Studies in Korean Family , Family Relationships, Marital Relationships, Marriage and the Family, Family Development, Introduction to Healthy Families, Korean Family and Life Culture	Standard Level License holders	Advanced Level License holders
	Subjects related to human development and human sexuality (1)	Human Development, Theory of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Infant Development, Toddler Development, Adolescent Development, Middle and Old Age Development, Gerontology, Sexuality, Gender and family	① Practice: organization related family life education, above 2 years(above 1 years with master's degree, exemption with PhD degree) or the teaching experience of family life education, above 50 hours	① Practice: organization related family life education, above 5 years(above 3 years with master's degree, above 2 years with PhD degree) or the teaching experience of family life education, above 100 hours
	Subjects related to 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family welfare (1)	Household Management ,Family Resource Economics, Family Law, Family Welfare, Family Policy, Family Counseling (Family Therapy)	② Continuing education: above 30 hours (Attendance in symposium related family can be accepted)	② Continuing education: above 50 hours(Attendance in symposium related family can be accepted, taking ethics with minimum 1 hour)
	Subjects related to family life education (1)	Family Life Education, Family Life Education and Practice,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 Parent Education, Marital Education		Ph.Ds in the family life education-related fields in abroad
	Written test	- Human Development - Family Relations - Family Life Education ☞ exemption: B.A. and M.D. in related family life education		

Source: Internal meeting material from credential committee in Korea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적인 가족관계교육을 포함),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등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들은 지역주민 대상의 가족정책전달의 일선에서 가족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 현재 약 120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014),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들에 대한 인력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M. Sung, M. Chin, J. Lee, & S. Choi, 2012). 하지만 매년 건강가정사는 꾸준히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래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52개소(중앙 1개소 포

함)로 증가세가 주춤하며 3년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Table 2>).

이러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현재로서는 가족생활교육 전파의 최적의 통로로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H. R. Song & Y. K. Jeong, 2008)로 제시되고 있다. 즉 가족교육이 건강가정사의 주요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간관리자급 건강가정사들을 제외한 상당수의 건강가정사들이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교육사업 담당 건강가정사의 직무를 분석한 연구(Y. J. Lee, 2008b)에 의하면 사무행정적인 업무가 주가 되고 센터프로그램을 직접 교육하는 강사활동의 빈도는 적어서 주로 외부에서 교육강사를 초빙하고 있다. 이는 건강가정사들이 본인의 역할을 코디네이터라는 제한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M. Sung et al.(2012)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건강가정사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151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종사자들의 전공영역이 가정학 전공 13.2%인데 반해 사회복지 전공의 비율이 49.4%로 절반에 가까운 실무자가 사회복지 전공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최근의 연구(J. Park, J. Jeong, H. Song, Y. Cho, & H. Lee, 2015)이다. 이에 대해 J. Park et al.(2015)은 이로 인해 건강가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적 지식의 미비로 가족교육사업을 포함한 건강가정사업 수행에서 건강가정 관점이나 법적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정학 관련 과목을 반드시 포함시켜 교과

목 이수를 하게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을 펼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나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가정학계에서는 왜 현장에서 가정학 전공의 건강가정사보다 사회복지 전공의 건강가정사를 더 선호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기타 가족교육 전문강사의 양성과 관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인적자원인 건강가정사의 상당수가 교육대상자들에게 직접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시 등 광역센터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 투입되어 가족교육을 이끌어갈 전문강사들을 모집·양성하고 있다. 이들의

Table 2. Current status of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Years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Total	3	16	47	66	82	98	138	139	149	152	152	152
KIHF	-	1	1	1	1	1	1	1	1	1	1	1

Sourc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2015). Project Guidance of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Table 3. Requirements on qualification of instructors related to family education

Type of Instructor	Requirement on qualification	
	Major & education level	career
Instructor on Family School	Above master's degree majored in related marriage, family such as Family studies, Gerontology(implied middle-aged), Family welfare, Social welfare, Family counseling	More than one year teaching career in child and families
Instructor on Family Chef	Above master's degree majored in related family such as Family studies, Family welfare, Social welfare, Family counseling, Child studies	More than one year teaching experience in child and families
Visiting Instructor on Communication Coach	Above master's degree majored in related family such as Family studies, Family welfare, Social welfare, Family counseling, Child studies	More than one year teaching experience in child and families + Communication Coach Certificate
Instructor on Multi-cultural Family Education	Above Bachelor's degree majored in related Cultural anthropology, Sociology, Pedagogy, Law, Home economics, Women's studies, Social welfare	Teaching and Research career in Multi-cultural families ▶ Persons who can make a lecture program(2 hours) on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families
Instructor on Single-parent family education	Above Bachelor's degree or Master's degree related family	Bachelor's degree: more than one year teaching career ▶ Persons who can make the lecture program(2 hours) on understanding of one-child family ☞ License holders like social worker, health family specialist will be given preference
Instructor on Family-friendly Education	Above Bachelor's degree	More than one year teaching career of family-friendly management, education for fathers, parent education, marital education etc. in family related company(institute)

- 1) The requirement of qualification is restructured as reference of recruit public notice for instructors by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in Seoul, One-Child family support Center.
- 2) Refer to the KHMA 2015 Fall Conference to know exact instructor title in Korean.

자격요건 및 양성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3>).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부터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학(가족관련 전공),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가족상담학 등 결혼·가족 유사 관련 학과에서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부부 및 아버지 교육, 결혼·가족관련 분야의 강의 경력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서울지역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강의할 예비부부교육(결혼준비교육) 전문강사를, 2014년부터는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전문강사를 모집하였다. 2015년도부터는 「예비부부교육」,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신혼부부교육」, 「베이비부부교육」이 가족 Talk Talk 학교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가족학교 전문강사를 일괄 모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들의 자격요건은 가족학(가족관련 전공), 중·노년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가족상담학 등 결혼·가족 유사 관련 학과에서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부부 및 아버지교육, 결혼·가족관련, 중·노년기 분야의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각 교육별 콘텐츠 교육, 강의 스킬업 보수교육, 연 2회 간담회 등 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 자치구 가족학교 강의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구축한 강사풀에서만 섭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요리하고 식사시간 대화를 통해 부모-자녀 간 소통을 증진하고 성장기 자녀의 인성을 함양하며 기존 '밥상머리교육'의 강의위주 교육을 보완하여 강의·실습·가정에서 실천방법까지 지도하는 찾아가는 코칭 프로그램을 위한 패밀리세프 전문강사와 찾아가는 대화코치 전문강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들의 자격요건은 가족학(가족관련 전공),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가족상담학, 아동학 등 가족 유사 관련 학과에서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아동·가족관련 분야의 강의 경력이 있는 자로 같으나, 찾아가는 대화코치 전문강사의 경우 대화코치 자격증을 요한다. 이들 강사 관리는 콘텐츠 교육, 강의보수교육, 연 2회 간담회 등으로 운영하며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촉강사 선발 후 강사풀 운영하며 강의 섭외여부는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우리사회에서 점차적으로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적응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와 다문화 인식개선을 돕고, 다문화이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미래 한국사회의 다문화 지수를 향상해 조화로운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2012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해오고 있다. 지원

자격은 문화인류학, 사회학, 교육학, 법학, 가정(족)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다문화에 관한 강의 및 연구 경력자로서 다문화이해교육 강의인(2시간) 작성가능자를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 한부모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정 이해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였다. 지원자격은 2시간 분량의 강의안 작성이 가능하고, 가족 관련 학과 석사 이상 경력이나 학사 졸업 후 1년 이상 강의경력을 요하며 사회복지사나 건강가정사 자격이수자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총 14시간의 워크숍을 통해 한부모가정 이해교육 강의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후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학교나 공공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거나 섭외를 통해 연계한 곳에서 한부모가정 이해를 위한 강의를 진행한다.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부모가정 이해교육 전문 강사 인력풀 구축 및 DB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강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08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는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제19조 2항).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센터 실무자 또는 센터 추천 강사, 가족친화관련 교육 유경험자 및 기업 내 교육담당자,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전문강사 활동희망자를 대상으로 직장내 가족친화분위기 확산을 위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학사 이상으로 가족친화경영, 아버지교육, 부모교육, 부부교육 등 가족관련 교육 기업(관) 강의 경력 1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기업연계직장교육 운영을 위한 '가족친화 전문강사'를 모집하여 가족친화 사업소개, 가족친화 직장교육을 교육내용으로 하여 양성교육을 실시한 후 기업과 연계하여 출강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종 가족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보면, 가족(정) 관련 전공의 학사나 석사학위소지자들에게 개방적이기는 하지만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관련분야 강의 경력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가정학 기반 자격증을 취득한 자들과 미래의 가족교육 전문가를 희망하는 가정학 전공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가족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족교육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1) 능력과 자질을 갖추는 것이 전문직으로서 가족생활교육사의 가장 핵심 영역 (L. Powell & D. Cassidy, 2001)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가족생활교육사 자격 시험과목의 재조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경제적인 안정과 안정적인 의식주생활 및 합리적인 자원관리가 건강가정의 중요 요소(K. J. Kang, Y. H. Kim, M. K. Park, M. H. Song, & M.-S. Lee, 2010)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많은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에서 '재무교육'과 같은 물질 요소에 대한 내용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가족관계 중심의 좁은 내용의 교육내용을 탈피하여 여기에 관리적 측면의 가족생활교육 내용을 포함·확대해야 할 필요(S.-G. Jeon, 2014)가 있으므로 가족생활교육사 자격취득 시험과목에 '가족자원관리' 관련 분야를 포함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필기시험 과목에 인간발달, 가족관계, 가족생활교육 외에 가족자원관리 관련 분야의 교과목을 포함시킴으로써 각 분야의 지식을 고루 갖춘 가족교육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교과목 중 '가족생활교육실습' 과목은 자격취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제조건으로 하는 방안이 요구되며, 이것이 실현될 때까지는 이 과목의 운영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가족교육 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실습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 필요하다 (J. Y. Park, 2007). 가족학의 실천적 학문으로서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영역이 가족생활교육 분야(H. S. Chung, 2002)라 할 수 있으므로 실습이 배제된 교과목 편성과 교육운영에 대한 학계의 반성과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가족생활교육실습 과목은 실제 교육자로서의 실습은 간과된 채 프로그램 개발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주관기관인 한국가족관계학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 현장과의 연계와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족생활교육전문가

들로 구성되어 가족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등 가족관련 민간단체는 물론 학문적인 체계가 부족하고 종교성이 강조되어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가가 주축이 되어 결혼예비학교, 아버지학교, 부모학교 등의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종교기관 등도 현장실습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는 가족생활교육사 2급 자격소지자와 가족생활교육사 1급 및 가족생활교육전문가 등 상급 자격소지자 사이의 현격한 수적 차이를 해소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2급에서 1급으로 승급 자격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실무가 요구되는데, 현실적으로 개별 자격소지자들이 이러한 실무를 경험할 여건이 부족해 승급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장실습 여건의 미비라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가족생활교육실습 과목에 봉사학습(service learning: P-A-R 기법) 개념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조별로 관심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충분히 준비하게 한 후(Preparation) 주변에서 대상을 찾아 교육을 실시하고(Action) 영상으로 교육장면의 일부를 촬영하여 오게 한 후 기말에 모여 발표하게 하고 각 조별로 실시한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와 토론을 통해(Reflection) 미래 가족교육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켜나가는 방법도 충분히 실행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간과하지 않아야 할 점은 학생들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교육대상자들의 입장이다. 아직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대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실행(A) 전 사전준비(P)단계에서 교수들의 철저한 사전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예비 가족생활교육사들은 현장에서 일반인 대상 교육을 실행할 때 필요한 것은 교육내용 못지않게 전달방법이며 가족생활교육이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대중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지각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H. S. Chung, 2002)는 점 등 실제적인 현장실습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2) 건강가정사들이 가정의 건강성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 가족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나갈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건강가정사 자격취득 교과목에 대한 재구성성이 필요하다. 현장 체험 및 학습은 우리 가정관리 전공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H.-Y. Kim, 2005). 앞서 기술한 가족생활교육사와 마찬가지로 건강가정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도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능력을 갖추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실습과목의 강화가

필요하다(M. Sung et al., 2012). 따라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건강가정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능력을 기반으로 전문성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관련 교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명시하여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H.-Y. Kim, 2014). Y. Cho, H. Song, J. Park, J. Jeong, and H. Lee(2015)의 연구에서는 건강가정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건강가정론, 건강가정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등 특정 교과목의 필수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건강가정현장실습 과목은 자격취득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이는 센터 내 가정학 전공의 건강가정사의 비율을 높이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필수적으로 120시간이상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해야 하고 보육교사들의 경우에도 한 달간 실습을 거쳐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건강가정사의 경우에도 건강가정현장실습 과목을 선택에서 필수로 변경하여 반드시 이수하게 하여 일정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경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격취득 교과목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현재 한국 가족은 전형적 핵가족 비율이 감소하고,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등 가족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사업이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관계향상교육 등 가족기능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므로(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5) 다양한 가족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가족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교과목이 건강가정사 자격취득 교과목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도 광역센터에서는 교육담당 건강가정사 보수교육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함으로써 이들의 가족교육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건강가정사의 엄격한 자질관리를 위해서는 급수제의 도입과 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M.-A. Sung & H.-A. Lee, 2004b)이 고려되어야 한다. 건강가정사 자격을 2급과 1급으로 구분하여 건강가정사 2급은 시험 없이 교과목 이수만으로 자격증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1급은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여 시험을 치르도록 함으로써 자격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건강가정사 1급, 2급과 같은 급수제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평가·관리하는 절차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M. Sung et al.(2012)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상담이나 교육과 같은 직접적인 서비스는 전문적인 영

역이기 때문에 건강가정사가 이 역할을 모두 수행하기 어려워 이러한 서비스를 센터 외부의 전문강사를 선정하여 투입,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H. R. Song, 2009)이 현실적이다. 따라서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족교육에 대한 지식이 강화된 1급 건강가정사가 센터의 교육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된 사업 중의 하나가 가족교육임을 감안할 때 교육대상자의 선정 등 교육환경 조성은 건강가정사가 하고 실제 교육은 외부 강사가 하는 현행방식보다는, 2급 건강가정사가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1급 건강가정사가 교육강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센터내의 건강가정사들끼리 소통하며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임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2급과 1급의 급수제의 도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여겨진다.

셋째,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이 건강가정의 구성요소이고(K. J. Kang et al., 2010), 현재 정책적으로 모두가족봉사단 등 가족돌봄나눔 영역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건강가정사들에게 '자원봉사관리'에 대해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여성가족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든 영역에서 가족돌봄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담당 건강가정사가 자원봉사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게 된다면 센터내의 부모교육사업에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2인 이상의 가족으로 구성되는 모두가족봉사단사업을 자연스럽게 연계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로써 가족돌봄나눔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의사소통 유형과 방법 등 가족생활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구성된 가족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의 가족건강성 향상에 효과(S.-M. Yang & G.-P. Cho, 201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부모교육사업에 모두가족봉사단사업을 적극 연계시켜나가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교육부에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봉사제도로 인해 아직도 상당수의 지역사회 중·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어디에서 어떠한 봉사활동으로 의무시간을 채워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사업 담당 건강가정사들은 부모교육과 연계된 모두가족봉사단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적극적인 홍보로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사업 모두의 win-win 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사업 담당 건강가정사에 대한 자원봉사활동관리 교육은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추진 능력을 갖춘 가족교육 전문가로

서의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건강가정사의 양성이나 보수교육에서 간과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 미래 가족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고려하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 개선 및 자격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족교육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실화 역시 주요 사안이다. 광역센터 보수교육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정과목과 광역센터 자율과목으로 나누어 이루어지는데, 자율과목은 한가원의 지정과목 외에 필요한 교육으로 운영 가능하므로 시군구 센터 직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 자율과목은 과목에 선택의 여지를 두어 직원들이 자신의 니드에 적합한 내용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가정학 전공의 건강가정사와는 달리 사회복지 전공의 건강가정사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정학 관련 과목에 대한 보수교육이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건강가정사들은 전공이나 최종취득학위 등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센터에서 맡은 업무 또한 다양하므로 획일적인 보수교육 방식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실무자별로 필요한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과 맞춤형이라는 특성이 전제되어(Y. Cho et al., 2015) 건강가정사에게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는 보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철저한 직무분석을 통해 각 실무자별 유용한 보수교육 콘텐츠를 풍부하게 개발하여야 하며 보수교육 참여자의 업무와 니드에 따라 적합한 내용을 선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모듈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가족교육 전문인력이 일할 수 있는 활동터전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이 요구된다

가족교육 전문인력은 건강가정지원센터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적재적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일터를 개발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사회복지관의 가족강화기능 사업에 가족교육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http://kaswc.or.kr/>)을 보면,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강화하는 사업인 가족관계증진사업, 사회구

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인 가족기능보완사업,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치료·사회복귀 지원사업인 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인 부양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등의 가족강화기능사업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관의 가족기능강화 사업을 가족생활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러한 가족관련 교육내용에 대한 기반이 부족한 사회복지관에서는 외부에서 특정분야의 강사들을 초빙(B. M. Kim & H. S. Chung, 2007)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가족생활교육사와 같은 가족교육 전문인력의 투입이 고려될 수 있다. 한국가족관계학회 등 자격관련 주관기관에서는 자격소지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들을 사회복지관 교육사업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2)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의 확산으로 기업 내의 가족교육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기업의 가족친화적 경영은 여성근로자의 일·가족 균형수준을 향상시키고(M. Chin & M. Sung, 2012), 기업의 성과를 높이며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근로자의 자기계발이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개인지원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에 비해 아버지교육 등 가족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의 비중은 매우 낮았다(S.-H. Kim, 2015). 하지만 앞서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가족친화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기업연계직장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 내의 가족교육도 좀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친화교육은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현재의 아버지교육 중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미혼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결혼준비교육(H. R. Koo & S.-M. Kim, 2010) 등 그 범위를 확장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경우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직장은 더 이상 남성들만의 장소가 아닐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일하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문제이므로(H. R. Song, 2010) 찾아가는 아버지교육뿐 아니라 찾아가는 직장여성을 위한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으로 가족교육의 대상과 주제를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기업 내 가족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면대면 집합교육만이 아닌 다양한 교육방식의 활용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가족교육 전문인력들이 협력하여 일상적인 가족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해 요구되는 교육적인 측면을 가미한 내용의 소책자나 저서를 발간하여 기업임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배포한다든가(예;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의 '결혼할까 혼자살까' '베이비부머를 위한 노년수업' 등의 방식), 아니면 기업의 사보에 일과 가정의 양립 등 건강가정 형성과 유지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족클리닉 형태로 연재하는 가족교육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가족생활교육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에서 신문이나 사보를 중심으로 수행하여 상당한 호평을 받은 경험이 있는 방법으로, 정부의 지원 하에 활동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민간단체보다 기업들과의 접근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적극 시도해 볼만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면대면 이외의 방식들을 통해서도 가족교육 전문인력의 활동범위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3) 고3학생들의 수능이후의 교실분위기 살리기에 가족교육 전문인력의 참여가 요구된다. 수능 후 고3교실의 파행운영이 매년 반복되면서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유적지나 기업체 방문과 같은 현장 체험 학습이나 단체 영화관람, 논술강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자체 편성하여 학생들을 결집시키려는 일선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채 수능 후 졸업 때까지 아까운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 그러므로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인근 학교들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요구도에 기반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수능 후의 학교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지역단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단, 모든 가족생활교육에서도 요구되는 바이지만 특히 수능 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무엇보다 재미있고 흥미를 유발하여 그간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다양한 교육매체나 교육방법의 활용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가 공동으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족영화를 감상한 후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소통하는 '수다로 가족풀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성주제성 교육, 성교육, 이성교제, 가족관계 향상 교육, 다문화이해 교육 등 주제를 바꿔가며 주제와 관련된 내용의 영화들을 선정하여 함께 감상한 후 소통하는 가족교육방식(예: '수다로 이성교제 풀기')은 수능 후 교실분위기 개선에 일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군부대, 어린이집, 법률기관, 공공기관, 종교기관 등 개인이나 가족이 교육받기를 원하는 지역사회의 어떤 기관이나 시설도 가족교육의 수요처가 될 수 있으므로(<http://www.ncfr.org>) 가족교육 자격관련 기관에서는 가족교육 전문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교육수준과 생활수준의 향상과 주5일 근무제 실행으로 여가생활이 확대됨에 따라 가족단위 문화생활과 여가생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평생교육기관이자 비형식교육의 장인 박물관·미술관에서 가족이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J. Y. Park, 2007). 자녀와의 상호작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를 제공하는 학부모용 가이드가 제공되면 보다 효과적인 가족친화적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연구(J.-H. Choi, 2011)도 나오고 있으므로 앞으로 가족이 참여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교육활동에 부모교육을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가족교육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주체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교육대상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도록 활용가능한 가족교육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축적해나가되 지역단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도농별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족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다양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주제별·대상별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기관 사이트에 데이터베이스화해 놓음으로써 기업이나 학교, 사회복지관 등 수요처의 교육 담당자들이 언제든 손쉽게 열람·신청 가능하게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이들의 가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교육담당자들이 센터의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을 확인해 본 후 이를 사원들에게 알리고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파악한 후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간단히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놓는 것이다. 이는 현재 일부 기업들이 사원복지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구상하고 있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

죽친화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대상자들을 찾아가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찾아올 수 있는 환경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가족교육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가족교육 전문인력의 활동가능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생활이슈들에 대한 교육이 인터넷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보다 많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으므로 (R. Hughes, J. R. Bowers, E. T. Mitchell, S. Curtiss, & A. T. Ebata, 2012),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온라인 부모교육·부모교육 등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여기에 가족생활교육사, 건강가정사 등 가족교육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4. 저출산 고령화의 큰 흐름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가족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이 요구된다

1)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입여성 1인당 출산자녀수 1.24명(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5)이라는 초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여성의 일과 자녀양육 병행의 어려움에 있다고 보고, 이는 자녀양육과 가사의 주된 책임자를 여성으로 규정한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에서 기인하므로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을 남녀가 분담하고 결혼과 가족생활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가족가치 교육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기저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생활교육사 등 가족교육 전문인력은 이러한 가족가치에 대한 충분한 자질을 습득하고 새로운 가족가치를 확산시켜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생애주기 가운데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건강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돌봄과 같은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균형있는 노년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차원에서 보다 전문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노년기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E.-J. Kang, 2015). 향후 백세 시대에는 가족생활교육이 더욱 중요한 가족정책의 과제가 될 것(H.-K. Cho et al., 2014)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생애주기별 교육을 강조해온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생애 후반부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 중·노년기 대상의 부모교육, 부모교육을 비중있게 다루어야 한다.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예비부모,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 자녀생애주기별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할 때에 이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노년기부모-성인자녀 관계를 포함한 포괄적 부모역할 지원정책이 요구되므로(H. R. Song et al., 2009) 대학교육기 이후 성년기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노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이에 대한 교육수행 능력을 갖춘 가족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40-60대 여성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H.-K. Cho et al., 2014), 모든 연령대의 부인들이 공통적으로 무능한 남편들의 자립적 생활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현재 노인복지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년기남성요리교실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는 패밀리세프 프로그램 등과 차별화하여, 부부가 함께 참여해 부부관계향상 등 노후준비에 필요한 가족교육도 받고 요리도 함께 하면서 남성들의 가정생활 자립을 돕는 방식의 '베이비부머 부부대상의 패밀리세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가족교육 전문인력의 양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치매노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들의 약 60%는 가정에서 가족의 돌봄을 받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치매노인당사자 못지않게 돌보는 가족도 부양 스트레스와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므로 치매노인부양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할 필요가 있다. 치매가족 구성원의 삶은 치매노인 중심으로 바뀌어져 있어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심리적 정서적 스트레스가 크고, 치매노인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가 큰 것으로 나타나 치매노인 및 그 가족에게 필요한 교육과 정보, 심리적·정서적 지원, 그리고 케어기술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과 배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D.-H. Kim & K. W. Um, 2015) 현실이 가족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는 치매노인부양가족이 다문화가족이나 조손가족 못지않게 많을 뿐 아니라 그들 못지않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들 가족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센터 내 교육담당 건강가정사들에게 치매가족을 위한 교육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 약 710만 명에 이르는 거대집단인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정년퇴직이 진행되면서, 사회경제적 은퇴부부들이 가정 내 소통과 재적용, 새로운 역할 찾기를 통하여 행복한 노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가족관계증진 프로

그램인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은퇴전후 가족파트너십’이나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가족교실은 저출산 고령화에 부응한 시의적절한 시도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종래의 노인층과는 여러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노년기교육프로그램과의 차별화가 요구된다. 아직은 일하고 싶은 세대이므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들을 알려준다거나, 돌봄이 필요할 경우 가족보다는 전문시설이나 기관 이용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세대이므로 도심형, 도시근교형, 전원형 실버타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들의 니드에 맞는 교육내용 구성에 신중을 기해 이들의 교육참여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베이비부머교육 전문인력은 베이비부머세대와 종래의 노인층과의 차이,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정책이나 제도 등에 대한 정보들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교육사업에 가족생활교육사와 건강가정사의 협업의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자격증을 소지한 가족생활교육사들은 계속해서 배출되고 있는데 일할 곳이 없고, 상당수의 교육사업 담당 건강가정사들은 직접적인 교육서비스 수행에 어려움을 느껴 외부에서 강사를 섭외하고 있으며, 지방의 건강가정지원센터들은 지역사회기관들로부터 교육요청은 많이 받는데 가족교육 전문강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H.-J. Jeong & N.-S. Yu, 2014)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국가사회적 손실이며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와 같은 당면과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교육사업에 민간자격 가족생활교육사들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지금도 일부 가족생활교육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사업에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원활하고 체계적인 상호보완이 기대되며, 이를 위해서는 가족생활교육사 자격 관련기관인 한국가족관계학회 차원에서 가족생활교육사들의 교육수행 능력과 자질 향상 등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전제되고 선행되어야 한다. 중앙 혹은 광역 센터차원에서는 이들 인증된 가족생활교육사 인력풀을 충분히 확보하여 지역단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사업의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교육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새로운 가족교육 전문강사를 모집하고 양성하기보다는 가족생활교육사 등 이미 학회차원에서 인증된 가족교육 자격소지자들을

활용하는 것이 교육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면서 건강가정사들이 외부강사를 섭외하는데 쏟는 시간과 수고도 덜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족교육 전문인력인 가족생활교육사와 교육사업 담당 건강가정사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양성과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가족교육 전문인력의 현장실습 등을 통한 역량 강화, 이들이 일할 수 있는 활동터전의 개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를 통해 교육수요처의 접근성 제고, 우리사회의 메가트랜드인 저출산 고령화에 부응하는 가족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가족생활교육사와 교육사업 담당 건강가정사의 협업으로 인한 가족교육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건강가정과 가족친화 인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가족서비스(복지)가 예방 모델(prevention model)로 흘러감에 따라 향후 가족교육이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가족교육 전문인력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http://www.ncfr.org>). 하지만 아직은 가족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본 연구가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충실히 비교분석하여 논의해야 하는 문헌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앞으로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한 우리나라 가족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초창기 가족생활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활동해온 본 연구자가 그간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가족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관리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REFERENCES

- Auh, S. Y. (2014). *Issues and challenges on family life education*. Discussion at the KHMA 2014 Spring Conference, Seoul, Korea.
- Chin, M., & Sung, M. (2012). Work-family balance of employed married women: Focusing on family friendly work policies of workplac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0(4), 13-24.
- Cho, H.-K., Kim, S.-M., Lee, S. M., Sung, M., Chin, M., & Lee H. (2014). Family life prospect of the middle-aged and its implications for family policy toward centenarian society. *Journal of Korean Home*

- Management Association*, 32(1), 151-166.
- Cho, Y., Song, H., Park, J., Jeong, J., & Lee, H. (2015). The empowerment plan and organizational experience of healthy family specialists through job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9(1), 139-161.
- Choi, J.-H. (2011).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family-friendly museum education program. *The Educational Review of Museum*, 6, 73-102.
- Chung, H. S. (2002). The tasks and prospects of "family life educator" as a profess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7(3), 1-17.
-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at Gyeonggi Province. (2015). Retrieved from http://www.gg.go.kr/woman/woman_op_office-health-we_do.
-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at Seoul. (2015). Retrieved from <http://family.seoul.go.kr/>
- Hughes R., Bowers, R. J., Mitchell, T. E., Curtiss, S., & Ebata, T. A. (2012). Developing online family life prevention and education programs. *Family Relations*, 61(5), 711-727.
- Jeon, S.-G. (2014, April). *Issues and challenges on family life education*. Paper session presented at the 10th Annual Celebrating 2014 Integrated Conference on Enactment of the Healthy Family Act, Seoul, Korea.
- Jeong, H.-J., & Yu, N.-S. (2014, April). *Current status and task of healthy family education in company with regional community*. Paper session presented at the 10th Annual Celebrating 2014 Integrated Conference on Enactment of the Healthy Family Act, Seoul, Korea.
- Kang, E.-J. (2015, May). *Current status and task of education program for the elderly at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KHMA 2015 Spring Conference, Seoul, Korea.
- Kang, K. J., Kim, Y. H., Park, M. K., Song, M. H., & Lee, M.-S. (2010). *Healthy family*. Paju, Gyeonggi-do: Yangseowon.
- Kim, B. M., & Chung, H. S. (2007). An analysis on the current features of family life education in Seoul area.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2(3), 285-312.
- Kim, D.-H., & Um, K. W. (2015). A study on care experience of family member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after policy implementation of dementia special rating-Focusing on difficulty of care and necessary social service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0, 349-371.
- Kim, H.-Y. (2014). A basic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coaching education program enhancing the capability training of a healthy family specialist.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2(1), 101-115.
- Kim, H.-Y. (2005, May). *The task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education: Focused on the curriculum for the healthy family specialist education program*. Discussion at the KFRMA 2005 Spring Conference, Seoul, Korea.
- Kim, S.-H. (2015). A study on family-friendly education of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supporting corporation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3(2), 21-34.
- Koo, H. R., & Kim, S.-M. (2010, May). *The role of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for establishing family-friendly society: Focused on education programs*. Paper session presented at the KFRMA 2010 Spring Conference, Seoul, Korea.
-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Centers. (2015). Retrieved from <http://kaswc.or.kr/>
- Korean Associations of Family Relations. (2015). *Internal meeting material from credential committee*. Seoul: Korean Associations of Family Relations.
-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2015). Retrieved from <http://www.kihf.or.kr/>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5). Retrieved from <http://kosis.kr/>
- Lee, Y. J. (2008a, May). *Job and competency of healthy family supporters*. Paper session presented at the KHMA 2008 Spring Conference, Seoul, Korea.
- Lee, Y. J. (2008b). A study for the job and competency of healthy family supporter in charge of educational work in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2(4), 79-102.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5). *2015 Project guidance on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Nationwide study on the prevalence of dementia in Korean elders*. Seoul,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2015). Retrieved

from <http://www.ncfr.org>.

- Park, J., Jeong, J., Song, H. Cho, Y., & Lee, H. (2015). A study on the education plan for empowerment of healthy family specialists in the family policy delivery system.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3(2), 53-70.
- Park, J. Y. (2007). A study of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n developing museum education program for family.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2(2), 65-96.
- Park, J. Y. (2007, November). *A developmental direction in education curriculum for enhancing the capability of a healthy family professionals*. Paper session presented at the KHMA 2007 Fall Conference, Seoul, Korea.
- Powell, L., & Cassidy, D. (2001). *Family life education*. Mountain View, CA: Mayfield Publishing Co.
- Shin, Y. K., Moon, S. K., & Chang, J. K. (2010, December). *A comparative analysis on family welfare project of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and integrated social welfare centers*. Paper session presented at the KFRMA 2005 Fall Conference, Seoul, Korea.
- Song, H. R. (2009). Human resource management of institutional household-to the application for job analysis of healthy families center worker.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3(1), 23-39.
- Song, H. R. (2010).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 for healthy families center : Focused on the working-married women.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4(1), 1-17.
- Song, H. R., & Jeong, Y. K. (2008). The evaluation and alternatives on the educational work in healthy family-support center.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2(1), 1-20.
- Song, H. R., Park, J. Y., Lee, W. J., Sung, M. A., Seo, J. W., & Chin, M. J. (2009). A pilot study for developing parenting-aid polici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6), 91-108.
- Sung, M.-A., & Lee, H.-A. (2004a). The roles, qualification, and fostering system of healthy families specialist.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2(5), 345-355.
- Sung, M.-A., & Lee, H.-A. (2004b, May). *Successful practical strategy of the Healthy Family Act III: The roles, qualification, and fostering system of healthy families*

specialist. Paper session presented at the KHMA 2004 Spring Conference, Seoul, Korea.

- Sung, M., Chin, M., Lee, J., & Choi, S. (2012). Certified healthy family specialists' job and working conditions from the insiders' perspective.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21(3). 453-468.
- Yang, S.-M., & Cho, G.-P. (2014). The effect of the family volunteering activity on adolescents' family strengths and school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Thinking & Problem Solving*, 10(3), 155-178.

Received: January 15. 2016

Revised: April 4. 2016

Accepted: April 8. 2016